



2011년 인쇄 및 관련 산업 결산 체감경기 여전히 "냉랭" 부문별 "온도차" 인쇄진흥 5개년 계획마련 총력

인쇄업의 생산지수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쇄업의 업황 경기지수도 지난 3월 이후로 대부분 실적치가 전망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져서 인쇄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or.kr

대동소이하게 어려운 상황 이어진 한해

2011년 한 해도 인쇄업계는 외견상 최근 수년간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현안들의 속 시원한 해결을 보지는 못했어도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서 볼 때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쇄업의 생산지수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쇄업의 업황 경기지수도 지난 3월 이후로 대부분 실적치가 전망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져서 인쇄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여기에 외부적인 원인으로 남유럽에서 출발한 유로존의 위기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 등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유로존의 주축이라는 프랑스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세를 떨치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세계경기의 동반부진은 투자의 위축, 소비의 감소를 불러와 국내 인쇄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인쇄기 부문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인쇄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디지털인쇄의 흔들림 없는 성장세는 우선 세계적으로도 탄탄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CTP판 출력장비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처럼 호조를 보이다 보니 더욱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다. 무엇보다 2011년 인쇄업계를 상징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정책적 영향'을 들 수 있다. 특히 인쇄산업에 대하여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업계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인협에서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5개년 계획을 연구하는 TF를 출범시키는가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5대 과제와 20개 사업을 제안, 인쇄업계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정부에 개진했으며 2012년에는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인쇄업 생산지수는 2011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제자리를 맴돌았다. 1/4분기에 109.3(1월), 108.2(2월), 109.3(3월)을 보인데 이어 2/4분기에는 103.9(4월), 103.3(5월), 103.7(6월)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3/4분기에는 99.1(7월), 101.1(8월), 99.8(9월)로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1년 여 만으로 말로만 거론되던 경기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쇄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전체 제조업과 비교할 때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면 인쇄업계의 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월에는 전체 제조업의 116.3(1월), 108.3(2월)과 비교해 0.1~7.0포인트 밖에 차이가 없었으나 3월 들어서 127.5 대 109.3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후에 9월까지의 다시 앞서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최대 26.0 포인트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3~7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인 것과 비교할 때, 최대 9배에 이르는 것이며 인쇄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 중소기업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좋지 못한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주요 경기지표인 인쇄업 업황 경기지수(BSI)는 전망치와 실적치가 최저 69에서 최고 97로 큰 변동폭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고치도 13포인트나 낮았고 60~80대에 머물렀으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변동 폭이 커지고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경기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BSI 전망치도 1월 100, 2월 80, 3월 95, 4월 90, 5월 82, 6월 83, 7월 69, 8월 83, 9월 97, 10월 91, 11월 94의 수준을 보여 극심한 불경기에 시달렸던 2009년에 비해서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에 비교할 때는 다시 불안정성이 커지고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BSI실적치는 1월 80, 2월 85, 3월 90, 4월 85, 5월 80, 6월 69, 7월 76, 8월 83, 9월 73, 10월 94를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100을 넘어서지 못해 인쇄업체들이 장기적인 경기 부진에 빠져들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풀이됐다.

수출입 부문에서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한 인쇄물 수출이 10월까지 2억 4042만3천 달러에 그쳐 2년 연속 3억 달러 달성의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 이는 지난해 1억8190만 달러에 달했던 기타인쇄물의 수출액이 2800만7천 달러에 그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편 인쇄물의 수입은 10월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억8563만 4천 달러를 달성, 3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인쇄기자재의 수입은 10월까지의 수입액이 1억 9733만2천 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은 1억 5320만8천 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신제품을 수입하는 인쇄기의 수입액은 9184만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중고기계를 수출하고 있는 인쇄기의 수출액은 5521만 7천 달러를 기록했다.

더욱 거세진 디지털인쇄와 IT바람

인쇄업계의 2011년을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는 단연 디지털인쇄였다. 최근 수 년 동안 인쇄업계는 물론 사회적인 핫이슈로 떠올랐던 친환경 바람은 여전히 큰 영향을 발휘했으며 인쇄업계의 위기설도 꾸준하게 인쇄업계의 주위를 맴돌았다.

지난해와 달랐던 것은 스마트폰이 인쇄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했던 막연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인쇄물의 신규수요 창출을 이끌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QR코드의 사용은 분명히 그 사용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물의 실질적인 증가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상관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수년째 범업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친화는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새롭게 돌출된 대형 이슈들로 인해 예년에 비해 관심이 줄어드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전력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문제로 떠오르는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 뿐 더러 추가적으로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인쇄업계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부자재를 사용하고 탄소배출규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최고의 이슈였던 환율은 상반기에는 하향안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부채질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를 비롯한 환율의 급등락이 거듭되고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러화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급등락을 거듭했다.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인쇄기자재를 수입,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었으나 수년째 지속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 환율 충격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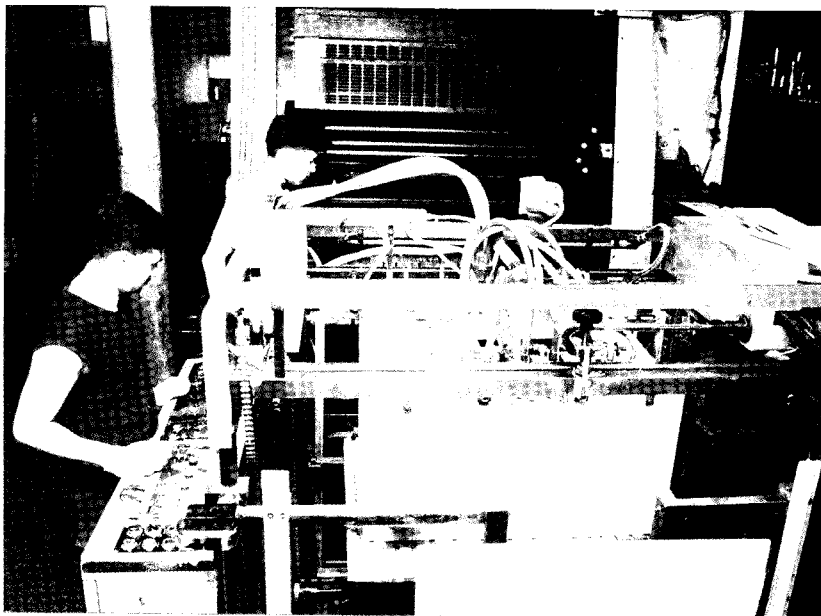
제지업계는 상반기 국내 M사의 생산설비가 추가로 증설되고 국제펄프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으나 다른 부자재들은 원료의 수급 불안정 및 환율의 영향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인쇄업계에 부담을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온라인 서점의 할인 경쟁에 따른 출판사의 부담 증가, 독서인구 및 아동 인구의 감소, 스마트폰 및 전자책의 성장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책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적은 편이어서 전자책이 종이책을 넘어서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도비와 코렐로 대표되는 디자인업계는 상반기에 비교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인데 비해 하반기에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한국코렐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 신제품을 선보여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 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외광고 부문은 수년째 행정적인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인쇄 장비의 생산업체들은 성능향상을 이룬 신제품들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옥외광고물 시장의 침체로 인해 대폭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설비투자 하강 조짐, 향후 전망도 어두워



2011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전년기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중소기업체의 비율은 24.4%로 조사되어 전년 하반기 전망치인 24%를 소폭 웃돌았다. 자금 조달 방법은 90.5%가 내부자금을, 24.4%는 차입금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비투자 자금의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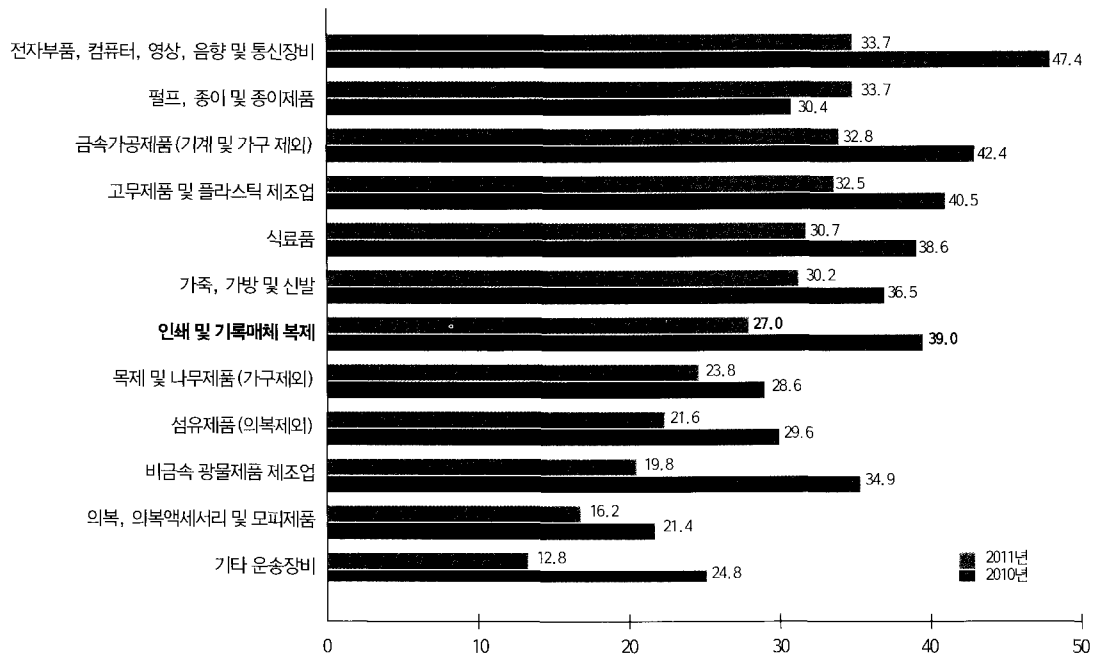
행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 (40.4%), '애로사항 없음' (35.5%), '대출한도 부족' (20.0%) 순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사항은 '내수경기 부양' (48.7%),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 (38.5%), '저금리기조 유지' (29.9%) 순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반기의 설비투자 사유는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 '기존제품의 생산력 증대'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대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비해 설비투자 미실시 이유는 '기존 설비만으로 충분', '국내수요 불투명', '수익성 저하'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는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의 비율이 증가(3.8%p 상승), '국내수요 불투명' (4.1%p 하락), '수익성 저하' (3.4%p 하락) 등으로 응답률이 변화했다.

한편, 업종별로 본 설비투자 업체 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인쇄업종은 지난해 39%의 업체가 설비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응답했으나 올해는 27%로 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뤄왔던 설비투자를 상당부분 진행한데다 올해 하반기 들면서 국내외적인 경기의 불안정성이 커진데 따라 경기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세로 돌아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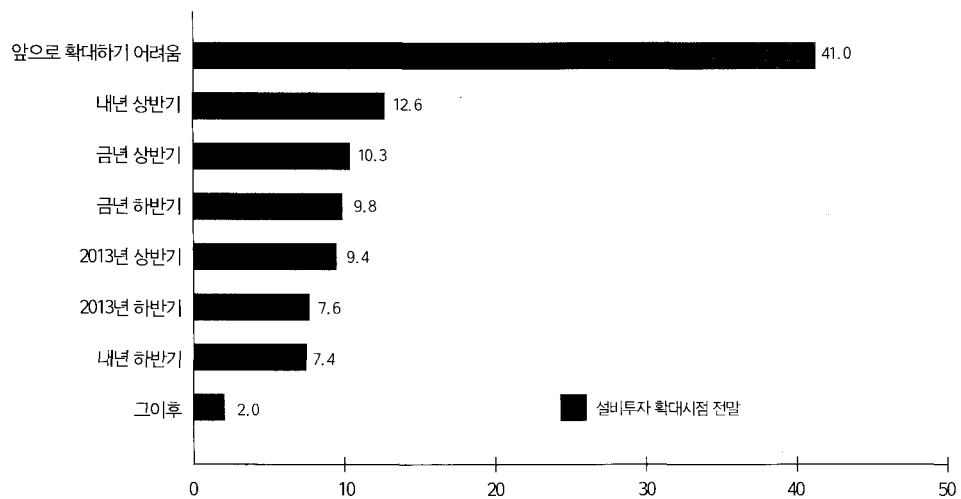
〈표1〉 업종별 설비투자 업체비율

(단위 :%, 출처: IBK경제연구소)



〈표2〉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

(단위 :%, 출처: IBK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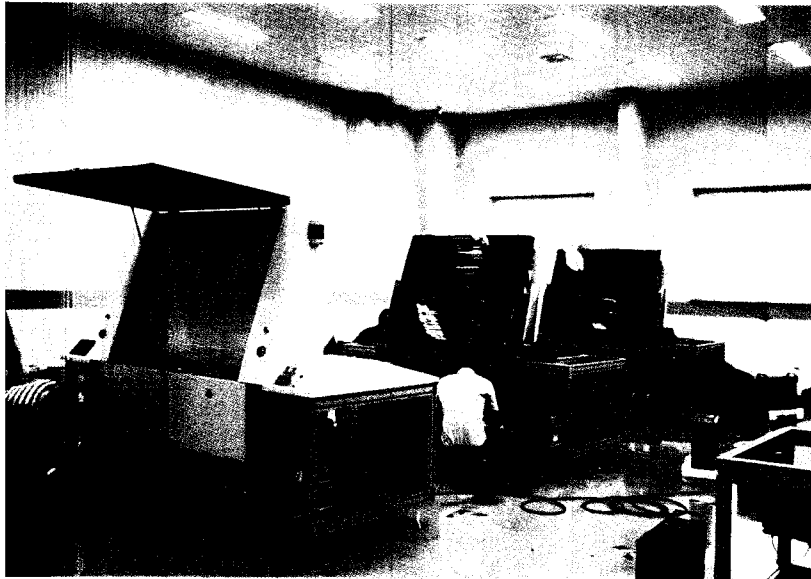


중소기업들은 설비투자의 확대시점에 대해 41.0%가 앞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내년 상, 하반기라고 답변한 비율도 22.9%에 그쳤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당수 중소제조업체들은 설비투자실시를 내년 이후로 미룬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동률은 1년 동안 60~70% 이상을 안정되게 유지했으나 내수부진(58.3%)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원자재 가격상승(46.2%), 과당경쟁(15.0%), 원자재 확보난(8.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동률 통계표에 따르면 제지업종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15.9%나 낮은 가동률(3월)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가동률을 보였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도 지난해 평균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거나, 높아도 3%에 그쳐 인쇄업계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의 심각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현안인 내수부진, 원자재가격상승 등이 인쇄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 특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올해는 최근 2~3년에 비해서는 원부자재가격의 상승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품목에 따라 변동이 커서 인쇄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해 이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가동률 및 수익성의 변화 추이로 본 2011년 인쇄업계의 경영상태는 지난해의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차갑게 식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2년에는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가 있는데다 미국 대선, 유로존의 위기 지속 등이 여전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마인드와 소비심리가 쉽사리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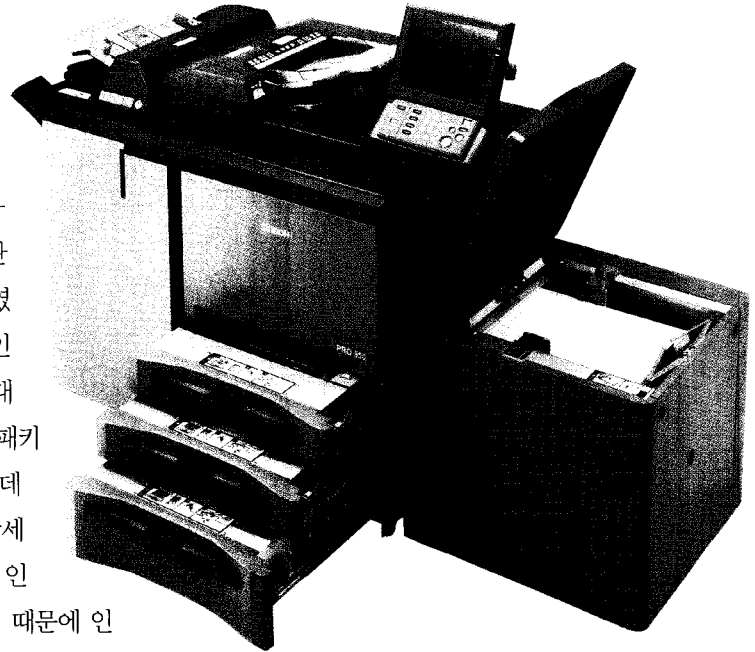
CTP시장 후발업체 줄이어

판재와 출력장비로 구분되는 CTP 시장은 최근 수년간의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 갔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지속적인 판매가 이뤄지면서 기존 업체들의 뒤를 이어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들이 뒤를 이었다. 이는 비용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인쇄의 성장으로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쟁은 주로 CTP출력장비에 집중되었으나 판재시장과도 연결 지어 마케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주된

트렌드가 되었다. 과거에 있었던 저성능, 저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각 공급업체들은 직접 개발하였거나 안정적이고 확실한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형 공급사와 제휴를 맺고 국내 시장을 적극 두드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품질의 관리와 고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들의 마음을 붙잡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공급업체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고 충성도가 높은 수요처와 호감을 보이는 고객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가 독주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CTP시장은 운영비의 절감에 관심을 가진 인쇄업체들의 관심과 CTP를 사용하는 신규업체를 잡으려는 공급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견고한 성장세의 디지털인쇄

인쇄기 공급업체들은 최근 수년간의 바닥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세를 느끼기는 어려웠던 한해였다. 이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디지털인쇄의 영향으로 오프셋인쇄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투자가 있더라도 패키지 부문과 DM에 치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패키지과 DM 부문의 성장세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인쇄 및 관련시장에서 비중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인쇄기의 대량 주문을 기대할 만큼 대량의 수요를 불러 오지는 못한다.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디지털인쇄기는 하이엔드급보다는 라이트급 또는 중간급으로 런칭한 모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한해였다. 디지털인쇄의 진전은 국내외적으로 디지털인쇄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IT기술 혁신에 의한 디지털인쇄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급 장비 및 보급형의 약진은 어려움을 겪고 인쇄업계에게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대형 모델이 갖는 기능과 품질을 거의 대등하게 발휘하면서도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디지털인쇄기 공급업체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적인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디지털인쇄기 공급업체들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지속적인 신모델 런칭으로 디지털인쇄기를 구입하려는 잠재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또한 이미 수년전부터 있어왔던 오프셋인쇄기와 디지털인쇄기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인쇄기를 보조적으로 생각하던 인식에서 점차 그 비중을 높여 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신제품 출시 및 새로운 변화 모색한 주변기기업계

라미네이팅기, 라벨기 등 주변기기를 생산하는 국산 제조업체들은 비교적 조용한 한해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인쇄기처럼 장비의 디지털화와 워크플로에 따라 무조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당하지도 않았으나, 엔화, 유로 등 환율이 급상승해 상당한 반사이익을 봤던 지난해와 같은 대형 호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기기 시장은 여전히 디지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포도북 및 DM 등으로 다양화되는 인쇄업계의 사업 트렌드에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인쇄업계의 전반적인 부진에 따라 대폭적인 판매증가는 없었지만 인쇄업계의 새로운 사업모델 추진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주변기기 공급업체들은 디지털 인쇄기의 증가에 따라 함께 작업 라인을 구성하는가 하면 디지털인쇄로 전환하는 인쇄사와의 접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펄프가 안정세, 신규 설비 가동한 제지업계

제지업계는 올해 국내외에서 대규모 펄프 및 제지공급설비가 완성되어 가동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와 같은 물량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의 메이저 3사는 주요고객층인 인쇄업계를 염두에 두고 인쇄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인쇄업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컨설팅이나 인쇄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제품 개발에 이를 반영하는 자문단을 운영, 자사 공장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적극 전개했으며 한솔제지는 지난 8월 대한인쇄문화협회 임원단 및 위원단을 초청하는 등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장하고 있는 전자 출판, 아직 지켜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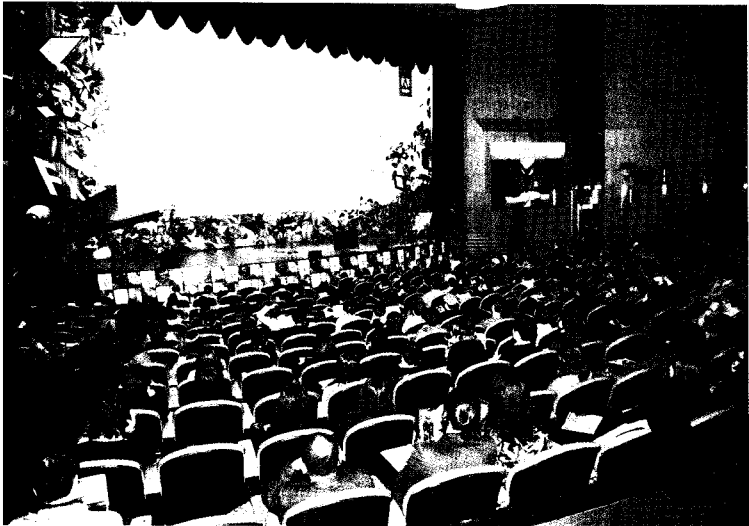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출판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 전자출판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밝은 전망을 기대하는 한해였다. 전자출판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2,000만대에 달하는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속대에 걸맞은 성장세를 보여주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책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미국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출판이 종이책을 이미 앞질렀으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동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출판 유통시장의 구조가 미국과 다르고, 주요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대형출판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비·코렐, 다양한 신제품 출시

편집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어도비코리아와 한국 코렐은 2011년 한 해 동안,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활동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오피스환경을 겨냥하는 제품을 선보였다.

한국코렐은 하반기에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선한 코렐페인터 12를 선보여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코렐은 “새로운 탐색 패널, 업데이트된 패널 및 팔레트 동작,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 작업 공간, 색과 레이어의 향상된 보존 기능, 공통 키보드 단축키 등을 탑재, 특히 어도비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전문가에게 보완적 도구로 최적



화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도비코리아는 201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세미나, 대고객 행사를 가졌으며 주요 신제품으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5.5버전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또한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폰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스마트폰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 서체 저작권 인정, 다채로운 서체 개발

2011년 9월 서체업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판례가 탄생했다. 디지털 한글서체 파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 모 씨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서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의 본래적 기능과 분리돼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서체 파일은 박 씨가 독특한 도안을 작성한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로 윤곽선을 가감 수정해 만들어진 것”이며 “파일에 박 씨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바람에 따라 점차 많아지고 있고 디지털 서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공공단체와 일반 기업체에서 공익과 마케팅 차원으로 서체를 개발하거나 디지털세대에 맞게끔 부드럽게 변화를 주는 사례가 많아졌다. 롯데백화점이 백화점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서체를 개발해 관심을 끌었다. 전용서체인 ‘샤롯데체’는 리본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어 글자에 부드러움과 세련됨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샤롯데체는 내년 1월부터 쇼핑백, 포장지, 전단, 인쇄물, 홈페이지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활용된다. 한편, 기존에 개발되어 무료로 배포되던 서울서체는 스마트폰용이 개발되었다. 또한 한국출판인회의는 리스크와 전자출판공용서체를 개발기로 하기도 했다.

국내외 전시회 성황, 인협 인쇄수출지원센터 개설

2011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여느 해에 비해 풍성한 국제행사가 열렸다. 지난 3월 중국 광저우에서 프린트차이나가 중국 및 동남아의 새로운 인쇄산업 전반에 관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인협은 인쇄문화관을 꾸려 관련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홍보했다. 이어 열린 뉴욕도서전과 세계 최대 도서행사인 2011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도 인협은 지식 및 현대인쇄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 운영했다.

국내 최고의 인쇄산업전시회인 키페스2011은 올해 처음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관련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시회 기간에 개최된 국제인쇄포럼 및 부대행사에 많은 관계자들이 몰리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초 인협 내에 설치된 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인쇄수출지원센터는 해외 주요 매체에 한국의 인쇄산업을 홍보하고, 인쇄 및 출판 관련 주요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인쇄물수출 상담을 지원하는가 하면, 해외업체들과 한국인쇄업체간의 가교역할을 했다. 또한 인쇄업체들의 위탁홍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인쇄수출지원센터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수출상담회를 여는 등 앞으로도 인쇄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